47과 왕이 된 다윗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성경의 요절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한다는 것..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한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이어 받아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에게도 세상적인 .????
저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변화를 실제 꾀하고 변화될수 있다라는 그 확신 그런 것을 저희가 아이들에게 알려줘야하는데...
저희가 그런 말씀에 대한 능력 그것을 인정하고 저희 생활을 변화시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인물에 그 말씀부터 먼저 기록해놓았는데요.
어...말씀을 우리가....내것으로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삶에 있어서 아는 것 보다 그 말씀에 이루는것은 많이 차이가 있는데..
다윗은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삶이었나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이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믿음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온단고 할 수 있잖아요.
영생도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한번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
그 심판에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주의 두려움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
사람을 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시라는 걸 그것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러면 두려운분이시라는걸 우리가 전할 때 그것을 전해주고 어..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양심에까지도 알리워졌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3:24)
로마서 2장에는 양심에 대해서...양심이라는 것은 마치 그 비행기의 블랙박스 같아서 수정도하고 변경도 하면서 그 양심의 우리가 행한 은밀히 행한 모든 일들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주님앞에가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
주님앞에 양심에 기록된 그 은밀히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에는 ...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우리도 그 말씀앞에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은밀한 것들 그런것들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앞에 드러난다는 거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지금 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 그런것들을
물론 천국에서는 이세상의 그 삶이 그렇게 천국에 삶에 비해서 큰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 표현은 할 수 없지만
그 천국에서는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는지를 다 알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상속으로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자세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천국에서의 그 어떤 삶을 늘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힘도되고 위로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그말에 가만히 의미를 되새겨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산하신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있잖아요.
심판한다는 것...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그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의 들으심을 알고도 ???
사람을 권하는 이유가 되는 거에요.
요한복음 3장에 ....

아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닿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못하노라”
실질적으로 내가 책망받을 짓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내 의가 되지 못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하여 상대방에게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았어도 칭찬이든 심판하시든....어 버리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책망받을게 없다해서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선하다하더라도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자 하나님이 계시는 그 가운데 ....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심정으로 구원받은 분들이 살아야겠다하는 마음으로 적어놓은건데요.
전도할때에 실제적으로 고생고생하신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이 돌아가셔도 또 그 불못에 고생하실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귀가 짠할지 모르겠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실려고하는 영광 그 상급이 있고 그에 합당한 능력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다 주셨는데...그것을 취하지 않는 ....
취하기만하면 우리것이 되는데...그러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은 그와같은 심정으로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적어놓은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만해도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우리입으로 우리가 깨닿은 말씀만 전하면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부탁을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담대히 전하고 있는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 그 생명과 모든 능력을 주셨는데...

정말 의미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능력을 온전히 취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실제로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변화시켜준 그 말씀이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말씀 ....
이 말씀을 구원받을 때 말씀으로 받아야되는 그 말씀을 받으면 구원받을 때 자유로움을 얻는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와같이 우리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말씀이라고 해놓았는데....
에....많이 강조한거 같은데 ...그 헤르만헤세의 인덧이라는게 있는데...
제가 이제 헤셋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인덧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따엘파가 부초황제를 만나는데 그 부초를 만났을 때 그분 그 소문듣던대로
성품이 아주 좋은거에요.
그래서 상당히 감동을 받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그 부초의 성품을 거부합니다.
우리와 같은 삶속에서 깨닳은게 아니라는 거에요.
이 삶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혼자서 고행하면서 고민하면서 깨닳아온 그말씀 그렇게 깨닳아서 우리한테 좋은말은 누구나다 할수 있다.
그러나 진짜로 우리의 각박한 삶 악이 가득한 이 삶속에서 나의 뺨을 때리면 화가 치밀어오르는 그런 삶속에서 깨닳은 말씀이라면 내가 받아들일 때
이세상을 떠나서 얻어지는 깨닳음 그것을 다시 이세상에 와서 좋은 말 하는 것은 누군들 못하느냐.
그런 인제 주의에요.
그 결국은 실제로 그 책의 주제를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냥 그렇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세상 각박하게 살아가는 이 삶속에서의 깨닳음, 그것을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동일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힘이 되고 실제로 그 많은 상황속에 우리의 삶이 적용될텐데...
그렇지 못한다는거에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체험하신분이라는겁니다. 직접 불의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삶을 통해서 그 깨닮음 그 것을 우리한테 준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체휼이라는 거에요.
동정하는게 아니라 그 앞으로 닥칠일들을 위해서 직접오신거에요.
그분이 이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에요.
말씀은 이렇지만 내 삶은 이렇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 ...
이게 말씀을 권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체휼한 자라는 겁니다.
14절 ....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분은 우리의..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그분이 바로 승천하신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에요.
그분이 체휼하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게 체휼이라는 거에요.
우리가 순종한다하면서 말씀따로 생활따로 일수가 없다는 겁니다.
직접 불의의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신말씀이시기 때문에 ??? 받아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시련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인데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체휼하신 이유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는 의인이되서 의롭게 살기위한 그 시간을 허락하기위해서
체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에요.
요한복음 10장에도
“어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줬잖아요.
비록 능력의 말씀을 부탁한거 뿐만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그의 아들로
삼아주셔서 저희를 영접하는자 그를 영접하는거고 저희를 버리는자 그를
버리는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의 ?????
내 아들을 이뻐하면 내가 이쁜거고 내 아들을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희를 볼 때 그렇게 본다는 거에요.
시편 119편 56절...
박스안에 있는거 읽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이게 순종이잖아요.
내 소유... 과연 내 소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앞에 내가 내 소유는 무엇일까?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주의 말씀을 지킨 것 ....그것이 나의 소유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일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하시고 영을 위해 살게 그의 의를 위해서 살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자 그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신잖아요.
우리의 소유는 곧 주의 법도를 지킨것이니이다.
우리가 무엇에 치념하고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지 육신에 속한것들은
육신과 함께 다 썩어지고 없어질것이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말씀을 취해서 ....그능력의 말씀을 취해서 살아가는가운데 그 사는 삶....그것이 영생을 거두는 영광을 얻는 그런 그 삶이 된다 그런겁니다.
이런 삶에 대한 순종에대한 그 자세가 아이들은 잘 되있어다는거죠.
순종에대한 어떤 그 말씀은 그 말씀을 내것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것 이렇게 정의 하는게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 16장을 같이 가세요.
사울이 불순종하므로 이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미 사무엘상 9장에 사울에 의해서 준수한 소년이고 모든 백성보다 어깨위는 더하더라 하는 그 용모가 뛰어났던 그 사울....그것을 그를 이미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붙는 다윗을 선택하는 그 말씀인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결국 사울의 불손을 인해서 다윗에게 모든 것이 이제 넘어가는 그 왕이될것으로 기름붙는 것이 이제 16장에 나오잖아요.
사울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말씀이라든가 모든 것이 준비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에 비해서 사울은 그 반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참고해 볼려고 ...이부분에대해서 박스 쳐놓고 참고를 해놓았습니다.
여기 좀 보시구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2절에 “그런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하면 이미 교만한것이죠
정상에 선 사람은 내리막길밖에 없잖아요.
결국 내가 아 이런면 되었다라고 할 때 넘어질 신앙밖에 우리한테 남아있는게 없는거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신 교만하다는 것 ...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거냐면 ...
어떤 말씀이나 충고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거에요.
그래서 교만은 항상 우리가 매일...스스로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교만한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

맡겨준 직책을 하나님 능력으로 하려면 늘 우리를 살펴보고 돌아봐서
교만하지 않는가 이걸 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교만을 물리치는 방법이 이제 몇가지가 있겠는데....
 그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얘기죠.
자기보다 남을 높이라...그게 무슨말이냐면 ....
사람들은 습성이 자기를 낮추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에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집이나 차는 낮출 수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몇CC 타다가 몇CC 못탄다.
30평살다가 20평 못산다..
이런말 많이 합니다.
교만된 사람들의 속성이 이제 세상 욕심일 끝없기 때문에 그런말일 나온거
같은데...그와 같은 거에요.
이런것들이 ...
내가 교만하지 않기위해서는 남보다 많이 낮아져야 하는데...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해야 된다고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높이는 것 ...
그래야 내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거잖아요.
그것이 한 방법이 된다는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우리한테 권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거에요.
높이라는 얘기죠.
몸하고 비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를 몸하고 비교하는거에요.
거기에 몸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
몸에 붙어있는 ...교회가 몸으로 설명한게 아주 적절한데...
이지체들은 서로 싸우지 안잖아요.
지체가 싸우는 지체는 없습니다.
오히려 한손이 다치면 한손으로 세수하면 불편하는거기 때문에 하나를
감싸주고 치료하잖아요.
발이 더러워지면 손이 닦아줍니다.
그런 것이 교회라는 거에요.
몸과 같이 ....

그래서 몸을 위한 적절한 비유가 12장에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데....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
이런 마음속에 있다면 내가 곤란하지 않다는 거에요.. 이런 마음속에 있으면 ...
한지체 그 지체로서 같은 교회내의 형제자매들 ....
향한 이런 마음이라면은 그건 내가 교만하지 않다라는 거에요.
그게 아니면 내가 교만하다 생각하고 세세하게 아주 살펴봐야한다는 거에요.
어디서부터 어떤 그런 교만의 뿌리가 시작되었는지....그런 마음이 들어왔는지
나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불평불만하는지..그걸 봐야한다는 거에요.
정말 내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가?
다른사람을 용인할 때...
당연히 감싸줘야 당연하잖아요.
쉽게 ....???
교회라고 하는 곳의 교제를 ...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21:01)
전도할 때 어떻게든 어...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허드렛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사랑을 하면은 교만이 없어진다는 거에요.
그런 심정으로...
정말 뭐 뭐든 다 하잖아요.
새로온분 구원받게 하기위해서...
그런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는가?...그런겁니다.
그다음에가 그 사랑하는 것이 ...교만을 물리치는것인데...
교제속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제가 아주 교제의 중요성...교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한가지 느꼈었는데....
예전에 그 그림파노라마라고 로비에 딱 해놓았었잖아요. 그림을....
참 아주 그냥....그.... 정경이 꽉차게 판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갔다놨었는데....
아 그때 참 그림 열심히 한걸을 알게되었어요.
그래 저는 ....그림이 전공인지라 ..그걸보고 막 판단하는거에요.
제 주변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게 이게 뭐냐고 말이야...

어 ..해도가 틀렸다고 ...말씀도 높이지...이게 뭔지...
이게 좀 커...표정도 그렇고...더 생생하게 그릴수가 있을텐데...
그림마다 지적하고 다니는 거에요.
그런데 소돔고모라 그림이 가까이 있을 때 그쪽에 서계시던 분들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림이 ...
그림분에게 죄송하지만 형편없다고 생각했는데...거기 서있는 분들은 그러는 거에요.
소돔고모라의 그 불기둥을 보면서 야.....
저런 그 형상이 어떤 예비일텐데 하나님앞에 그런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것인가?
그런걸 얘기하면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막 하는거에요.
저는 그 그림을 통해서 문제는 하나도 안되었거든요.
판단하는거 때문에 전혀문제가 안되는데...
그런데 그 그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있었던거에요.
그러니 그 사람의 믿음하고 저의 믿음하고 어떻게 같을수 있냐 이거에요.
저는 교제내에 있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를 돌아볼수 있게됐지..
그러지 않으면은 나혼자 끝까지 그길 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
나를 봐 달라든가...하나님한테 옳게 쓰여질때에...그것이 나에게 달랐듯이 전부 그 달란트로 인해서 나의 감정이 약점이 되겠구나
그것을 인제 알게되었어요.
정말 말이라고 하는 것 ....
그것 자체가 교만이 될수 있다는 거에요.
내가 더 오래믿고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이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에 길들여 졌다고 생각해야지...
실제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능수능란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에요.
그런면에서 한번 쭉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만을 물리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
아무튼 다윗과 사울은... 사울의 모습을 보게되는데...
실제로 순종하는 삶을 산 줄기...실제로 삶을 산 다윗에게서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치는 것을 많이 보게됩니다.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는 말씀...잠언말씀을 성경에서 보면요.
사물엘상 16절...
아니 16장 1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하잖아요.
그때 신하들이 권하는 것이 다윗을 보냅니다.
수금타는 다윗을 보내서 그 앞에서 수금타게 하는거에요.
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잖아요.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마귀가 막 주장하잖아요.
실제로 이몸은 구원받지 못한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구원에 대한 그것을 빼앗아 갈수 없지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방해하고 빼앗아 갈수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해 해야되는가?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는 그 잠언 1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그 형제자매님들과 교제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거에요.
사무엘상 16장 18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
자...베들레헴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그 다윗을 본즉 이러이러한데...
특히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라고 말하는거에요.
그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게된다는겁니다.
그를 보게되는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지혜자와 동행하면...지혜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그게 실제로 지혜자인데....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죄가 들어오는 것을 씻어내고 해야될텐데...
창을....창을 던져서 내치잖아요.
결국은 다윗과 사울은 너무나도 상반된 그런 삶을 보입니다.
다윗이 다윗의 이 인품을 알기위해서 아비가일하고 만나는 것을 제가
찾았는데요.
 어...거기 25장...사무엘상 25장...2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삼천이요
염소가 일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실제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나발이었는데...
“그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나발은 미련한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아비가일은 아버지를 죽게한자라는
뜻을 갖고있다고 합니다.
나발은 실제적으로 미련한자라는 말과 함께 ...어..미련을 보이게 되는데..
다윗이 열소년을 보내서 그들의 그 소유물을 지켜준 그거에 대한 값으로
양털을 깍는 잔칫날에 열명의 소년을 보내서 음식을 이제 취할 것을 달라고
보냅니다.
그랬을때에 나발은 그들에게 모욕을 주고 도로 그냥 돌려보내는...그래서
그것을 전해 들은 다윗이 항상 신중하게 행했는데...
그 미친짓까지 했던 다윗인데...이제는 아주 경솔한 모습을 봅니다.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사백 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이백 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그 수욕을 줘서 나발이 식솔 열명을 돌려보냈는데...
그것을 돌아와서 다윗에게 고하자 ..다윗의 경솔함을 기록되었는데....
반면에 또 나발의 집에서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본 한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그것을 고합니다.
그 아비가일은 그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예물을 취해서 다윗에게
가는겁니다.
23절...“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리고나서 24절부터 31절까지는 다윗을 설득하는 장면인데...26절 보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비가일이 권하는 말이요.
내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여호와께서 원치 않는다는 말을 전하는 거에요.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다윗의 어떤 경솔한 것을 통해서 어....죄를...하나님앞에 죄를 범할 것을 미리 막기 위한 그런 간절한 호소, 설득을 어...말하고 있는데...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훗날 왕이 되실 때 그때에 허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죄를 지금의 ??한 그 분노를 참으라는 그말을 권합니다.
그 여인네의 말을 권할 때 여호와께서...여호와앞에서 짓는 ..질 수 있는 범죄함 자체를 막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그 말에 다윗이 그말을 받아들이는거에요.
아무리 작은자...그 세미한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다윗의 인품입니다.
(31:20)

32절,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삼상 25:32-33)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을 보낸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하는 것을 .....잖아요?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막으셨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은 것이 다윗이잖아요.

우리한테 전해지는 그 말씀들. 그리고 교회 속에서 형제, 자매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말씀들.

그 들려주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말을 여호와의 뜻으로 받고, 돌이키게 되고, 나발은 아비가일이 그 상황을 잔치 후에 전해지자 몸이 굳게 되고, 며칠 후에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39절에 **(삼상 25:39)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나중에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죠.

그런데 나발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 그것은 나를 보내

셨다는 것은, 나의 삶 전체가 섬세하게 구원을 받게 인도하셨다면 나의 나머지 삶 전체도 섬세하게 세세하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겪는 모든 것들, 나한테 악한 말, 내가 듣기에 거북한 말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작은 말, 그런 것도 절대 .....지 않았다는 거예요.

훌륭한 변호사나 유능한 수사관들은 그냥 지나치는 말로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냥 지나치는 말도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순간순간에도 만남 자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박스 안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14절 있잖아요?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전도 집회 때 영상에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귀가 되고, 코가 되고, 눈이 되가는 것.

눈이 벌어졌는데 모아져서 눈이 되잖아요?

전혀 눈인 것 같지 않은데 눈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 되는 것을 잘 알지 못해도 되어 가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알지 못해도 엄마 뱃속에서 우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주의 모든 섭리는 하나

님이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밴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해도 아이가 성장해 자라나가는 것처럼 만사를 이뤄나가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89-91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자세하게 아이가 되어가고, 몇 달 만에 탄생하는 그 과정을 모두 몰라도 이뤄나가시는 것처럼, 그 만물, 만사, 모든 것이 그렇게 운행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는 ...사라. 악한 자는 악한 자에 의해서도 얻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옥석혼효)
세 명이 ....면 반드시 얻을 만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남은 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코 그것이 나한테 해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 보고 받을 만한 것이 있나하고 모든 것에서 기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씀을 통해서 쉽게 돌이키고 권하는 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자세, 그 마음이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말씀.....수록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배울 때도 그 말씀이 "아!" 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상태에서 받으면 그것이 힘들기만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취하지 않는 우리들이 있을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안타까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을 겁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다윗에 대해 이제 참고하시고요.

전리품을 함께 나눈다는 것, 이것은 중요한 것 같아서 잠깐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이 배경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얹혀살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었는데 그 장군들이

원치 않지요.

원래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돌이켜서 블레셋의 대적이 될까봐 같이 싸우지 못하고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왔는데 그 때 아비가일이라는 아내마저도 다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600명의 병사들 중에서 많이 지쳐있는 200명은 브솔 시내에 머물게 놓아두고 400명이 가서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전리품을 나눌 때 22절에 보면 (삼상 30:22)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것은 다윗의 뜻이 아니지요.

악한 자와 비류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 다윗이 한 말은 24절에 (삼상 30:24)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일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균등히 나누어 주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하마터면 블레셋 군대와 합쳐서 이스라엘과 싸울 뻔한 그런 .....

그런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면 26절에 보면 (삼상 30:26)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에서 떠났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그에 관한 모든 것은

여호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한 것은 공동체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서 같이 나누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잖아요?

..... 잔칫집에 갔다 온 후에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주머니에 넣어서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주면 떡에 주머니 먼지가 덕지덕지 붙은 것 떼면서 먹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족이잖아요.

누나, 형, 언니, 오빠가 급식빵. 옛날에 옥수수 빵이잖아요.

그것을 가져다가 조금 먹고 동생들한테 갖다 주면 동생들이 좋아라고 먹잖아요.

그런 가족, 그런 공동체 의식을 다윗은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교회라는 것을..... 전리품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

그것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는 지체라는 것과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다윗에 대해 굉장히 여러 군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점이 많은데 공과를 보니까 .....공부하고 공부하는 가운데서 제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교훈을 받을까 하다 왕이 될 만한 말씀, 인품으로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있는 다윗.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순종에 대한 것. 순종이 도대체 무엇인가? 말씀을 받는다는 것. 체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